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막

-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짐바브웨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습지보전’ 논의
- 2034년까지의 람사르협약의 이행목표를 담은 새로운 전략계획 채택 예정

환경부는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짐바브웨 빅토리아 폴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 람사르협약은 생태·사회·경제·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기 위해 1971년에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했으며, 2008년 창원에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함

이번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는 172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습지보전’을 주제로 3대 환경위기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습지의 손실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연대를 모색한다.

개최국인 짐바브웨는 7월 24일 △습지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습지 보전을 통한 지역 생계 강화 등을 주제로 고위급 토론을 진행하고 당사국들의 의지를 결집하여 ‘빅토리아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의 이행현황을 담은 람사르협약 사무국의 보고서 등이 공유되며, 람사르협약의 중장기 계획인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을 비롯하여 당사국들이 습지 보호를 위해 발의한 결의문 초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는 2034년까지의 람사르협약의 이행목표를 구체화한 계획으로 당사국들은 전략계획에 기반하여 람사르협약의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원 동원 등 쟁점사안에 대한 당사국간 협상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발의한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 초안도 이번 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해당 결의문은 기후변화와 같이 습지의 생태적 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습지의 취약성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습지 감시(모니터링)에 습지의 생태적 취약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당사국총회 기간 중 주요 행사로 신규 습지도시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7.24. 15~16시 현지 시간)이 진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문경시와 김해시가 새롭게 습지도시로 지정되어 인증서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이와 연계하여 신규 지정된 습지도시를 소개하고 기존 습지도시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습지도시포럼(1부 7.24. 16~17시, 2부 7.25. 15~18시 현지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 습지도시 인증제는 지역사회에서 습지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발의하여 2015년 제12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으로, 올해 31개의 신규 습지도시와 18개의 재인증 습지도시가 지정되어 현재 총 27개국 74개의 습지도시가 인증되었음

정은혜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흡수원으로서 습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될 것”이라며,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습지보전 정책을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람사르협약 개요
 2.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 개요
 3. 람사르습지 및 람사르습지도시 지정현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강부영 (044-201-6600)
	국제환경협약팀	담당자	사무관	한상완 (044-201-6608)

□ 협약 명칭

-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르협약)

* 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Ramsar Convention)

□ 채택 배경 · 목적

- (배경) 1960년대 유럽에서의 대규모 습지 소실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 제기
- (목적) 생태·사회·경제·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습지의 소실과 훼손을 억제하고 물새가 서식하는 습지대를 보호

□ 연혁 및 가입국 현황('25.6월 기준)

- 채택/발효 : '71.2.2(이란의 Ramsar에서 채택)/'75.12.21
- 당사국 수 : 172개국

□ 우리나라 주요활동 및 이행사항('25.6월 기준)

- 우리나라 가입/비준 : '97.3.28('97.7.28 발효)
- 국내 람사르습지 26개소(203.189km²) 지정 및 9개 습지도시 인증
- 제10차 당사국총회('08.10월, 창원) 개최국으로서 의장직 수행
-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RRC-EA) 및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십(EAAFP) 사무국 유치('09년)
- 습지도시인증제 독립자문위원회 제1대 공동위원장('17-'19) 및 제3대 공동위원장('23-'25) 수행
- 습지재정협력을 위한 재정협정을 통해 연간 3억 원 기여('23~)
- 결의문 6개 발의 및 채택 주도
- ※ **X.3** 창원선언문, **X.31** 논습지 생물다양성, **XII.10** 습지도시인증제, **XIII.17** 습지생태계 간편평가, **XIV.10** 습지도시인증제 개선, **XIV.13** 공교육에서의 습지교육
- ※ 제15차 당사국총회('25.07, 짐바브웨)에서 습지취약성간편평가 결의문 초안 발의예정

붙임 2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 개요

- (배경) 한국·튀니지가 공동 발의하여 제12차 당사국총회('15, 우루과이)에서 결의문으로 채택
- (내용) 관내 람사르습지 혹은 습지보전지역에서 습지 보전 및 이용에 지역사회가 참여·활동하는 도시가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인증
- (현황) '25년 현재 27개국에서 총 74개(우리나라 9개) 도시가 인증
- (인증기준) 6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관할구역 내 람사르습지/습지보전지역 1개소 이상
 - ② 습지 및 습지 생태계서비스 보전방안 수립
 - ③ 습지 복원·관리방안 이행
 - ④ 습지의 중요성을 고려한 공간계획·통합도시관리
 - ⑤ 습지 혜택·서비스에 대한 교육·홍보(습지교육센터 등 설치·운영) 및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여부
 - ⑥ 습지도시 관리 및 인식증진 등을 위한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 (인증절차) 당사국 인증신청서 제출(당사국→사무국, 총회 후 6개월 이내) → 람사르협약 독립자문위원회* 평가 → 총회 직전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에서 발표 → 당사국총회에서 인증서 수여(총회 2주기(약 6년)간 인증 후 재인증 필요)
 - * 후보 도시를 평가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제도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협약 내 독립기구로서, 지역별 당사국 대표 및 관련 국제기구 등으로 구성. 우리나라는 제1대 공동위원장('17-'19) 및 제3대 공동위원장('23-'25), 자문위원 등의 역할을 수행

붙임 3

람사르습지 및 람사르습지도시 지정현황

시·도	시·군·구	람사르습지	지정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강밤섬	2012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2008
	연수구	송도갯벌	2014
광주광역시	북구	평두메습지	2024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제치늪	2007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갯벌	2018
	고양시	고양 장항습지	202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대암산용늪	1997
	평창군	오대산 국립공원 습지	2008
	영월군	한반도 습지	2015
충청남도	태안군	두웅습지	2007
	서천군	서천갯벌	201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부안군	고창·부안갯벌	2010
	고창군	고창 운곡습지	2011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장도 산지습지	2005
		증도갯벌	2011
	순천시·보성군	순천만·보성갯벌	2006
	순천시	순천 동천하구	2016
	무안군	무안갯벌	2008
경상북도	문경시	돌리네습지	2024
경상남도	창녕군	우포늪	1998
	김해시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 물장오리오름	2008
		제주 동백동산 습지	2011
		제주 숨은물뱅디	2015
	서귀포시	제주 물영아리오름	2006
		제주 1100고지	2009

: 람사르습지도시